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1월 11일(금)

---(윤력 10월 18일)---

Пятница

11 ноября 2022г.

№ 44 (1201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사할린의 등대> 경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사진: 주정부 제공)

닭 살처분된 양계장 운영주들에게 보상금 지급

사할린 주는 사할린 남부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따른 검역을 실시했다.

가축 전염병의 진원지는 '오스로브나야'양계장이다.

위험 구역은 양계장으로부터 반경 5km지역에 해당되고, 관찰 구역은 위험 구역에서 반경 10km구역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 구역에서 주민들이 키우는 양계류 닭, 거위, 꿩 등등을 살처분하고 있다. 이는 대형 양계업체들의 마릿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위생 조치이다. 이 조치는 연방법을 적용해 합법적 범주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모든 양계장 운영주들은 가금류 살처분을 위해 넘겨주어야 한다. 이후 생닭의 시장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사할린주 수의학 및 축산청의 로자 쿠즈넬코 청장이 말했다. 처분 시 문서가 작성되는데 문서에 처분된 가금류의 수량과 각 표본 생닭의 무게가 제시된다. 다음 운영주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수의학 및 축산청을 방문해 신청서에 자금 이체를 위한 계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주 축산청은 가금류 농장의 생산 및 관리 부지가 여러 지역에 있음을 확인했다.

조류 독감은 단 육계 양계장에서만 발병했다. 현재 생산은 중단됐으며 양계들은 살처분됐다. 달걀 생산의 양계장에서는 조류 독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달걀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며 신선한 달걀들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조류 독감 발병 이전에 생산된 육류도 유통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각 생산품마다 수의사의 안전 인증서를 지니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2022년 사할린 등대>경연 우승자들에게 상 수여

주지사가 제정한 사할린주상의 우승자는 지역 주민 23명, 19개 기관, 기업, 공공 단체이다. 체호브센터에서 주지사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축하했다.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사할린의 등대> 경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친지를 보살피고,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과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서방의 압력에 맞서고,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사회가 우리의 군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집들은 모두 변함없이 평온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후방 전선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며,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의사, 교사, 농촌 및 주택 공공사업의 직원, 상업, 사회복지, 문화와 스포츠의 종사자들, 사업 대표들,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공기관과 전문적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신 주민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지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시와 마을과 주 전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도력과 사업이 우리 사회에 단결과 통합을 유지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로와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단결의 날

과 더불어 '사할린 등대' 경연의 우승을 축하드리며 만사에 행운과 형통을 기원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인사를 전했다. 선발 경연에 수백 개의 지원서가 제출되어 전자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수만 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조직위원회와 전문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의사, 교사, 운동선수와 코치, 문화 및 사회기관의 종사자들, 자원봉사자, 청년 활동가, 다자녀 부모와 재능아동이 있는 가운데 <사할린의 등대> 상을 놓고 식품 생산업체, 수산업체, 서비스 분야 업체, 중소기업, 사회적 자치지역, 관리 회사, 사회기관, 스포츠 클럽, 공공단체와 활동가들이 경쟁을 치렀다.

<사할린의 등대> 올해의 인물로 68군단장 드리트리 글루센코브가 선정됐다.

부문별 우승자 중 한인 동포도 있었다.

'사회(대중)의 인정' 부문 -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우승.

'우수 관리회사'부문 - 사할린 한인청년회의 고문 실라쵸와 알료나가 운영하는 관리회사 '리고 서비스 컴파니'가 우승.

'노인자원 봉사자'부문 - 흠스크 시민 김영순 씨가 우승.

'우수 단체 숙박 시설'부문 - '메가팔라스'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인 '그린 솔루션'(사장 안화자)은 우승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주지사 및 정부 구성원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상이 전달된다.

단신

사할린 지역, 국가기획 성공적으로 수행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유리 트루트넬 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가 주재한 위원회 회의 총결로 이렇게 보고했다.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가운데 2018년-2022년 국가기획의 실행 결과와 2024년까지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12개 국가기획과 45개 연방기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45개 지역 기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 기획들의 일환으로 2022년에 보건, 교육, 주택, 도시환경의 19개 시설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3/4분기 결산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국가기획의 사회적 주요 결과 성취도에 따라 러시아 지역들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사할린 지역의 기획 추진 자금은 135억 루블리로 이 중 38억은 연방예산이고, 97억 루블리는 주예산이다.

리마렌코 주지사, '통합 러시아당'의 사할린주 총비서로 추대

통합 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웨체브 총재가 당대표로서 사할린 지역 총비서직에 주지사를 추대했다. 이러한 결정이 사할린주와 3개 행정자치단체의 수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곧 후보 지명에 대한 문제는 통합 러시아당 지역 회의 참석자들의 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사할린, 자원봉사자 및 무인기 조종 예비군 교육을 위한 훈련소 조성

특수 군사작전에 동원된 병사들의 훈련이 우스펜스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68군단 사령관 드미트리 글루센코 중장이 무인기 사용에 따른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소에서는 무인기 제작 및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교관이 지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방법에 대한 지원은 지역 디지털개발부가 하고 있다.

시 예산 계획 공청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초대

11월 22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3년과 2024년 -2025년 계획 기간에 시 예산 기획에 따른 공청회가 열린다.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11월18일(금)까지 시 행정과로 주요 재정안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보낼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지구 예산안에 대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 예산안 책정을 시 행정부 사이트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오늘'신문에서 볼 수 있다.

공청회는 11월 22일(화) 오전 11시 '로지나' 문화회관(주소: 프로스펙트 미라, 83)에서 열린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11월 10일(목) 러시아 연방 내무국 직원들의 날

'아버지를 모범으로 삼아 경찰관이 되었다'

11월 10일은 내무관(경찰)들의 날이다. 이 명절을 1962년부터 기념하는 가운데 개편과 관련해서 두 번 정도 공식명을 바꾸기도 했지만 본 업무는 그대로다.

오늘 기사 주인공은 우글레고르스크 시지구 내무국(경찰) 부국장 오카드 막심 블라디미로위츠(40세)다. 계급은 중령이다. 내무 1, 2, 3 급 훈장 및 '우수 지구 경찰관' 훈장 수상. 슬하에 딸(13세)이 있다. 사할린동포 3세로 할아버지의 본명은 장학황인데 일제시대 때 사할린(가라후토)에 강제동원되었을 때 오카다로 불리우게 되었다. 나중에 자녀들의 공식 증명서류에는 '오카다' 또는 '오카드'라는 성이 적히게 되었다.

막심은 어릴적부터 내무관(현 경찰관)이 될 거라고 집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는 이 일을 어릴적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내무관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한평생을 내무관으로 근무했다. 우글레고르스크의 교통 경찰서장으로 장기간 활동한 아버지를 존경스러워 했고 그 일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멋있게 보았다. 그래서 기술전문학교에서 법학을 배우고, 그후 2000년도에 내무부 소속 2년제 극동 전문법대(하바

롭스크)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하바롭스크 폴리테크닉대학에서 통신으로 법학을 배우며 고등 법률적 지식을 쌓았다.

전문 법대를 졸업한 후 우글레고르스크로 돌아와 내무관 일을 시작한 그는 여러 부서의 일을 해보았다. 처음에는 범죄수사부에서, 다음엔 임시 구금시설(구치소)에서 일했고 2004년에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샤흐초르스크 내무국으로 옮겨 미성년 담당 인스펙터, 지구대 경찰관(파출소 경찰관 비슷함), 지구대 경찰 담당자로 활동했다. 2015년에 우글레고르스크 내무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모든 지구대 경찰관 담당을 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 우글레고르스크 내무관리국(경찰)의 공공질서유지 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카드 막심의 중령의 진급 및 근무 기록을 소개할 수 있다.

그 간단한 소개에는 매우 풍부한 그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누군가 지금도 물어봐요. '왜 내무서(경찰)에 근무하는가?', 그리고 경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일상의 사건사고들을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민족적 정신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다치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다면 제가 당연히 해야 하죠"라고 막심 경찰관이 말하였다.

일반 지구대 경찰관으로 일했을 때 그가 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그는 많이 접촉했다. 특히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 집에서 싸우는 가족, 알코올 중독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등등 거의 매일 만나서 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가족 간, 이웃 간을 화해시키는 것은 경찰관의 업무 중 하나다.

한 지도자로서 그의 업무량은 많은 편이다. 아침 7-8시 출근으로 시작하는 그의 일정은 우선 주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파악, 매일 지도부 회의, 담당 분야 부하 경찰관들과의 회의, 그날 과제를 세우고, 행사 준비 관련 업무 등등으로 꽉 차있다. 계획된 업무 외에는 비상으로 처리할 일들도 자주 생긴다. 도시가 크지 않아서 구조대원이 별로 없어 경찰은 구조

작업도 많이 한다. 사람을 찾거나, 눈보라로 인한 구조를 하거나, 낚시꾼들을 구호하는 등등이다. 물론 도시에서 하는 행사 안전을 위한 조치도 오카드 중령이 담당하고 있다. 도시 행사는 주로 주말에 진행하니 공공질서 안전 담당자로서 부국장의 휴일은 거의 없다.

그의 얘기를 듣고 보니 여러 경찰관들과 인터뷰를 해본 필자는 '경찰서에서 일하면 정말 일에 헌신해야 하는구나. 계속 움직여야 하고, 대응해야 하고, 예방작업을 꼭 해야 하고 공공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취재 경찰의 주인공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많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고, 신뢰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직업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의 책임과 자부심에 대한 생각이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문제가 잘 풀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저 스스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죠. 우리 한인들은 항상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이 저의 직업 선택을 존중해주셨고, 항상 응원하시는 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모범의 예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활약하실 때 주위 사람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 다. 저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를 담고 싶습니다."라고 오카드 경찰관이 말하였다. 그리고 교제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경찰관의 업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으로 사람, 또는 그의 미래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을 좋게 바꾸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젊은 경찰관 육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경찰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저는 술 중독자 3대를 알거든요. 일하면서 처음엔 중년의 남성, 지금은 노년이 된 사람, 그의 아들이 어른이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지금은 그 아들의 아들이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이 많은 사고들의 원인입니다.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합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것을 왜 해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역시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오카드 부국장이 사람의 나쁜 습관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건강한 몸을 위해 체육관을 정기적으로 찾아 체력 훈련도 많이 한다. 현재 이것은 아마도 그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전에는 샤흐초르스크에서 매년 전투 역사를 재연해 거기에 즐겨 참여하곤 했지만 지금은 4년째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유시간을 동료들과 야외에서 보내기를 좋아한다. 그때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한다. 특히 고기요리, 그리고 김치갈비볶음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에게는 딸과 보내는 시간도 무척 소중한다고 말한다.

남자다운 남자로서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며, 심리상태를 고려해주는 오카드 막심은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경찰 업무에 무한히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전국 올림피아드에 2,000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 참가

2022년 - 2023년 학기 학생들의 전국 올림피아드 지방단계 개막식이 11월8일 (화) 유즈노사할린스크 2호 리제이 학교에서 열렸다.

올해는 시의 27개 교육기관에서 7학년 -11학년까지 학생 2천여 명이 지식 경쟁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2022년 9월 -10월까지 진행된 학교 올림피아드와 지난 2021년 지방단계 올림피아드의 우승자와 수상자들이다.

한 달 동안 학생들은 22개 과목에서 자신의 지식을 펼치고, 최고가 되기 위해 결전을 치러야 한다. 시험 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천문학, 러시아어, 외국어, 생태학, 지리, 문학, 역사, 사회상식, 경제, 법률, 예술, 체육, 기술, 생활안전, 컴퓨터 정보 등, 올해는 새로운 두 개 과목이 추가되었는데 독일어와 중국어이다.

올림피아드 각 과목 시험의 채점에는 이들이 소요되는데 이후 학생들은 채점을 볼 수 있고, 틀린 것을 분석하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각 지방 단계 우승자 시상식은 연말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2000 школьн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2022/2023 учебного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в лицее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8 но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танут более 2000 учащихся 711-х классов из 27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а. Это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школьного этапа олимпиады,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сентября по октябрь 2022 года, а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школь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бороться за звание сильнейших и показы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по 22 учебным предметам: это математика, физика, химия, биология, астрономия, русский язык,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экология, география, литература, история, обществознание,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искусство,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ехнология, ОБЖ и информатика. В этом году список пополнили два новых предмета — это немец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На проверку олимпиадных работ после каждого предмета отводится два дня. После школьник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их, провести анализ ошибок и разбор заданий.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미래를 배려로' 청년 포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2월 8일-9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미래를 배려로'라는 청년 환경보호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1998년부터 '로드니크' 환경보호 센터' 사회단체와 사할린주 일반 과학 도서관이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 창작회관의 지원 협력으로 개최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계몽 및 자신의 환경보호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 진행과 사회적 환경보호 기획 실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행사 프로그램은 대표단의 강연, 생활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 습관 형성에 대한 원탁회의, 환경보호 교육에 적용된 게임기법, '사할린 -1' 컨소시엄의 장려 지원으로 시작된 <인디오의 반란> 전략 보드게임 발표로 구성된다.

포럼의 참가 대상자는 학교 및 창작회관의 학생, 대학생, 환경보호 그룹, 사회단체, 사할린주의 청년 학자들이라고 '로드니크'의 홍보센터가 전했다. 신청서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С заботой о будущем" пров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9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молодеж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С заботой о будущем". Форум проводит с 1998 год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дник"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при партнерской поддержк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 форуме дети, подростки и молодежь подводят итоги свое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и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по проведению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находят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ления делегаций, круглый стол по проблеме бытового мусора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экопривычек, игротехники, применяемые в эколог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презентация настольной игры-стратегии "Индийский бунт", выпущенной при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онсорциума "Сахалин-1".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форума могут учащиеся школ, домов творчества,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ые учены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Родник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30 ноября.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체조의 날 기념

전 러시아 '체조의 날'을 기념해 '보스토크' 교육 및 훈련센터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383명의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축하 분위기를 연출한 가운데 운동선수, 예술가, 음악인들이 동참했다. 체조의 날을 맞아 기계 체조, 리듬 체조 연맹과 트램펄린 연맹도 기념했다.

올해 프로그램의 명칭은 '독특한 행진'이다. 올라 노위코와 감독이 체스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흑백을 주제로 했지만 밝게 강조된 부분들도 있었다. 무대는 다양한 만화영화와 동화의 인물들로 장식되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06
----------	-------

발의연월일 : 2022. 9. 19.

발의자 : 이명수 · 金炳旭 · 김상훈
김희곤 · 박성민 · 이달곤
이태규 · 최승재 · 태영호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도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을 두어 형제 자매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착"을 "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유족"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동반가족"을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호 계속)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전공 학생들, 한국영화 관람 후기 발표

지난 8
일(화) 사
할 린 국립
대학교 어
문·역사·
동양학 대
학 (학 장
임 엘비
라) 에 서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기획의 일환으로 '영화 또는 드라마(시리즈) 관람 후기'란 주제로 원탁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 드라마 '여신 강림', '태양의 후예', '무브 투 헤븐', 영화 '부산행', '택시 운전사', '기생충',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2년생의 김지영' 등 8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한국 영화를 골라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자기 소감을 전하며 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이들은 미디어기술을 이용해 발표했는데 다들 발표 내용이 풍부했고 설득력도 있었다. 학생들이 영화를 깊이 파악 것으로 보인다.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동양학부(한국어과)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소장 박상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기획은 9-10월에 한국 영화에 대한 두 차례 퀴즈대회로 시작했고 이 기획의 일환으로 '꿈 같은 떡볶이'란 표현을 러시아어로 '맛있게' 번역하는 온라인 경연도 하였다. 주최 측은 기획의 마지막 행사로는 '떡볶이' 요리 교실을 다음주 언다고 전했다.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기획의 여러 단계,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떡볶이를 만들면서 한국 영화 장면에서 자주 나온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퀴즈도 진행할 계획이다. 떡볶이 만들기 체험실로 기획을 마무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이 요리를 무척 좋아하는 데 있다. 사할린 학생들은 맛있는 마무리를 이미 기대하고 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옥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고 있는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2세)는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판정을 받으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판정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적어도 1년은 한국에 거주하여야 국적심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라고 전달하였다(2021. 5. 13. 법무부 국적과 간담회에서). 그러므로 국적판정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1세와 그의 자녀, 이미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와 그의 자녀 뿐만 아니라, 영주귀국을 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할린 동포와 그의 자녀들이다'.

또한 국적판정 신청은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하여야 하며, 본인이 거주지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하여야 한다.

위의 상황에서 보면 이산가족이 되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2세까지는 국적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적판정만 받으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인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도 개정하여 러시아 현지에서도 한국 영사관 등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할린 한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항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이 조항은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에 해당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

(다음호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поговорили в СахГУ

8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е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Отзыв на кино/сериал».



Студенты 1, 2, 3 курсов,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отзывы на восемь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 фильм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оscarоносный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нашумевшие «Таксист» и «Поезд на Пусан».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должны были не только вкратце представить понравившийся фильм или сериал, но и высказать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о фильме, поделиться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по просмотру.

Сред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сериалов и фильмов были и новинки этого года, что вызвало несомненный интерес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ект «Все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реализуется с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

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сентябре-октябре прошла викторина «Все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а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онлайн-конкурсе на самый «вкусный» перевод.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вести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выражение «꿈 같은 떡볶이». Кстати, были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ые перевод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е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ждет заверша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 кулинар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Ттокпокки мечты».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приготовят это популярнейшее в Корее блюдо, но и поучаствуют в викторине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в кино, сообщили на кафедре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ФИИВ.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Понятие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може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нятие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о с семьи, имеющей трёх и более детей, до семьи, имеющей дву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этой связ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Данный вопрос обсуждался 9 ноябр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страны.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отметили, что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ку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ширило программу стипендий для детей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и распространило программу пристрахования за детьми на семьи с двумя детьми в возрасте до 12 лет.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аким семьям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Сейчас такая поддержка оказывается на уровне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ов.

KBS World

На авторынке тренд на маленькие автомобили

Сеул, 9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Спрос на маленькие автомоби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рождается, поскольку цены на бензин достигают рекордных уровней, а глобальная рецессия побуждает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затягивать пояса.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о продано около 98 520 малолитраж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что на 47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уже превышает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96 603 автомобиля. Впервые за восемь лет продажи малолитражек увеличились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бума внедорожник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стране было выпущено всего три малолитражных модели — Kia Morning и Ray, а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Spark от GM, и они не обновлялись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или шесть лет. 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еохотно 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малолитражки, поскольку они получают небольшую прибыль от продаж, а потребители потеряли интерес.

Но рынок начал оживать, когда Hyundai выпустила мини-внедорожник Casper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Casper производится компанией Gwangju Global Motors, совмест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Hyundai и города Кван-

джу. Это практично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оптим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Он также оснащен системой Smart cruise, которая редко встречается в малолитражках. Поскольку автомобиль можно купить только онлайн, минуя дилерские центры, он привлекает молодых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заботящихся о цене. Ежемесячно продается от 3 000 до 4 000 единиц,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совокупные продажи превысили 45 000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месяц.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пад также заставили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избежат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ернуться к маленьким автомобилям. Они даже становятся популярными среди отдыхающих.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и небольшие размеры, квадратный Kia Ray имеет просторный салон,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люди модифицируют его для кемпинга. В августе Kia выпустила модифицированную версию Ray, в которой все сиденья можно сложить. В сентябре было продано 3 806 та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Эта тенденция заметна и на рынке подерж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огласно платформе подерж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K Car, спрос на малолитражки растет, поскольку все больше потребителей ищут более дешев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движения.

Премия DIAFA оказалась не розыгрышем!

АНИТА ЦОЙ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DISTINCTIVE INTERNATIONAL ARAB FESTIVALS AWARDS «DIAFA — 2022»

4 ноября 2022 г. в Дубае, в Вида-Крик-Марина, Дубай-Крик-Харбор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ремия арабского мира DIAFA-2022.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Ф Анита Цой стала первой и единственно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ей России, которой была вручена престижная премия DIAFA.

Проводимая ежегодно в Дубае премия DIAFA — уникальная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аемая выдающимся личностям из арабских и других стран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и достижени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Список лауреатов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жюри, состоящего из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музыки, искусства, культуры, экономики, бизнеса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Цель премии: воздать должное известным людям из разных сфер, которые заслуживают особого признания, отметить их достижения в карьере и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поприще. Эта премия чествует личностей и деятелей, которые оставили особый и уникальный след в своих сообществах по всему миру из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ей, таких как музыка, искусство, культура, экономика, бизнес, гуманитарные услуги и другие.

Лауреаты и гости преми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ысшего общества арабского мира, а также известные персон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21-й страны: ОАЭ, Оман, Турция, Габон, Алжир,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Филиппины, Судан, Индия, Франция, Египет, Китай, Сирия, Россия, Ирак, Пакистан, Йемен, Тунис, Иордания, США, Ливан. В част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престижную премию получили Ее Высочество Sheikha Maha Bint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 дочь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ОАЭ, правителя Дубая; 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ер Steven Seagal, актриса и режиссер из Сирии Sulaf Fawakherji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знаменитости.

Премия DIAFA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девяти крупнейших телеканалов ОАЭ.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грады в Дубае стало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звезды Аниты Цой пол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о певица получила в свой адрес всего за четыре дня до церемонии.

«Когда я обнаружила в почте письмо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приехать и получить награду, подумала, что это какой-то розыгрыш.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премии я не подавала. Честно скажу, что и о самой премии я узнала впервые. Но изучив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 церемонии в интернете и в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ах, а также, пообщавшись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церемонии, 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реальное, большое и серьезное событие арабского ми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ми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е случайно остановили свой выбор на моей персоне. По мнению жюри, мое творчество, сочетан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сохран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максималь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бованиям к лауреату премии. Это было похоже на какую-то красивую сказку, в которую верилось с трудом. Передо мной стояла ответственная и волнительная задача — достойно, первой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страну на премии DIAFA-2022» — поделилась Анита Цой.

Для красной дорожки и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евица выбрала эффектный яркий образ, олицетворяющий солнечный Дубай.

Поддержать российскую певицу пришли и некоторы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Одна из них продефилировала на премии в платье цветов российского триколора.

Свою заслуженную награду DIAFA-2022 Анита Цой получила лично из рук Dr. Michel Daher — основателя 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мии DIAFA. Он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российскую певицу несколькими фразами на русском



На премию Анита прибыл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ына Сергея Цоя.

языке, чем выразил особое уважение Аните Цой.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певицы с большой сцены особо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Анита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артистом в мире, создающим свои яркие, незабываемые шоу, как режиссер-постановщик. Славится своим смелым, новаторским креативом, идущим всегда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и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труд на благо своей страны.

Певица произнесла со сцены приветственную речь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Я с детства люблю сказки. В них — сильные и красивые герои, невероят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волшебство и всегда счастливый финал, где добро побеждает зло. А еще, в них есть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и чувство, без которого нет смысла в нашей жизни. Я говорю о любви! Без любви невозможно творить: писать прекрасную музыку, создавать великолепные шоу, возводить новые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центры, обучать детей, лечить больных, генерировать идеи, безвозмездно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другим людям, делать крепкими наши семьи... Мы ничего, ничего не можем без любви! Сегодня мне приятно быть здесь, среди людей, обладающих этим чувством. Посмотрите друг на друга, посмотрите на всех, кто есть в этом зале. Каждый из нас добился, благодаря любви к своему делу, больших высот в профессии, но в наших горящих сердцах осталось место и для благородных, добрых дел,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их традиций. Мы наполняем мир вокруг себя нашими мечтами и делаем его вокруг нас лучше и прекраснее. Мы — волшебники! Сегодня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как в сказке, потому что еще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на этом месте была голая пустыня с палящим солнцем над головой и без воды. А сейчас я нахожусь в настоящем оазисе! Величестве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й город, зеленые газоны и парки, чистая питьевая вода и такие умные, сильные и красивые люди! Разве это не волшебство? Не сказка?!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быть здесь, среди вас и принимать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DIAFA.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аграды Анита Цой исполнила для гостей церемонии свой хит «Пятый океан». Высту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звезды стало эффектным финалом большой премии DIAFA-2022, а мастерство и голос Аниты Цой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лауреаты и гости церемонии.

(Сайт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извинился за трагедию в Итхэвон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я в связи с произошедшей трагедией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Выступая 7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вящённого вопрос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испытывает великую боль и печаль, будучи президентом, в обязанности которого входят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а жизней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иня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ры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безопасной страны, в которой подобные трагедии будут невозможны. По его словам, власти пересмотрят систему реагирования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и устранят накопившиеся проблемы.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едомств,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частные эксперты. Они сосредоточ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системы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большими скоплениями людей.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уверены в том, что трагедия в Итхэвоне произошла из-за не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организованными массами людей.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к решению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нужно подходить не только с позиции контроля за отде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ил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но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ситуациям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ест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риски. Он призвал реформировать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лиции,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предотвращать проблемные ситуации. Президент заверил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 том, что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тща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а весь его процесс будет прозрачен.

5 нояб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четыр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5 нояб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четыр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SRBM) в направлении Жёлтого моря.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ракеты запущены в период с 11:32 до 11:59 с территории уезда Тонним-гу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Дальность полёта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130 км, максимальная высота около 20 км и скорость около 5 Мах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месте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 за передвижени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33 раза запускал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и три раза -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В РК создаётся комисс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12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и 17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формируют совместную комиссию, которая в период с 10 по 30 ноября займётся провер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мест массов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4 но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ерке подлежат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концертов,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рынки, региональные фестивали. Такие меры принимаются во избежание повторения трагедий, подобных давке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29 октября. В результате трагедии погибли 156 человек, более 19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различные травмы.

На пике волны COVID-19 возможны 200 тыс. новых случаев в сутки

На пике очередной волны COVID-19 су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00 тысяч.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4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ктивизирует усилия по вакцинации, поскольку более 35 млн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лучили прививк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не менее четырёх месяцев назад. Это привело к ослаблению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заявил, что власт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тщательный мониторинг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ов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Хан Док Су отметил, что в нынешнем виде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олжна справиться с вероятным ростом суточ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заражений до 200 тысяч.

РК на девятом месте по сумме авторских вознаграждений в сфере музыки

В 2021 году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на музыку (KOMCA) заняла девя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сумме авторских вознаграждений.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дерации обществ авторов и композиторов (CISAC),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 ноябр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боры KOMCA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6%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201 млн евро. В первой тройке США, Франция и Япон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общила об улучшении своего показателя на одну позицию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ч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ослабл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 росту рынка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ля сборов авторских вознаграждений составила лишь 0,014% от ВВП страны.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спасли шахтеров, которые провели под обвалом почти 10 дней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ахтера были вызволены из цинковой шахты, в которой произошел обвал почти 10 дней назад.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назвал спасение "чудом", поздравив выживших и спасателей.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26 октября на одном из многих горн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Южной Кореи. В уезде Понхва,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что примерно в 250 км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Сеула, произошел обвал в шахте, где велась добыча цинк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а глубине 190 метров оказались изолированными два шахтера - оба по фамилии Пак, одному из них 62 года, а другому 56 лет.

В их спасени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1145 специалистов и 6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многие коллег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лич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й операции. В итоге спасатели с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тоннелей, где могли находиться шахтеры, но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появлялось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того, что они живы.

Все начинало выглядеть так, что родствен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готовиться к худшему, но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ли, что в шахте есть воздух, вода и "карманы", где застрявшие могли бы укрыться, ожидая подмог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возлагали и на то, что оказавшиеся в подземной ловушке люди были опытными шахтерами, а потому имели шанс на выживани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спасатели смогли определить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двух мужчин и пробиться к ним, пробив ход длиной 325 метров. Оба спасенных хотя и были ослаблены, но смог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йти

на свежий воздух, проведя под землей более девяти дней - 221 час. Шахтеры оказались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примерно в 11 часов вечера к радости родных, близких, спасателей и всех тех, кто следил за этой историе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звал спасение "чудом", поблагодарив шахтеров и спасателей за выдержку и мужеств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спасенных, на момент обвала у них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пакетов растворимого кофе и 10 литров питьевой воды. Из рулона полиэтиленовой пленки они соорудили что-то типа палатки и развели костер, благо вентиляция была, а вокруг хватало дерева. Когда вода закончилась, они стали употреблять жидкость, которая просачивалась в шахту. "Первые три дня хотелось есть, чувствовали сильный голод, а потом даже и привыкли. Страшно не было,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помощь придет, все хорошо", - сказал старший их мужчин своему сыну, который все эти дни находился рядом с шахтой и следил за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ей.

Данная история оказалась несколько в тени из-за трагедии, которая произошла вечером 29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где в результате давки на Хэллоуин погибли 156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молодые люди.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трагедию в столице, спасатели не прекращали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в итоге и сделали возможным практически чудесное спасение шахтер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кино вписывается в глобальные тренды

Сеул, 7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роизводители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Стражи тундры» и «Эра библиотеки»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я с зарубежными дистрибьюторами контента во время 38-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ынка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MIPCOM),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авторы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сериала телекомпании SBS «Стражи тундры» подписали письмо о намерениях с европейской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ей Off the Fence.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четырехсерийный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сверхвысокой четкости будет иметь локализованный ремейк и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глобальных потоковых сервисах, включая BBC, Discovery +, Netflix и других.

240-минутный сериал, рассказанный ведущим актером Ко Хен Чжоном, я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м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SBS 2010 года «Наследники тундры», в которо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жизни 7-8-летних кочевников, живущих в Сибири.

«Стражи тундры» снова показывают жизнь тех детей, с котор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ы

встретились 11 лет назад, рассказывая о том, как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и разведка газа в регионе повлияли на их жизнь.

Magenta Company, продюсерская компания «Эры библиотеки»,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е с британским дистрибьютором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и фактических развлечений TVF International о глобальном продвижени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контента Magenta Company.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фильм «Эра библиотеки», удостоенный награды Нью-Йорк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2021 года, исследует роль библиотек в цифровом мире.

Серия из двух частей посвящена известным библиотекам по всему миру, включая библиотеку Ватикана и дат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Black Diamond.

MIPCOM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в мире ежегодных рынков вещате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Он проводится в Каннах, Франция, каждый год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артнерств и определения повестки дня развития на будущ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организовало выставочный стенд Korea New-Tech Showcase,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28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контента и их работа.

Арендова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й самолет дешевле, чем купить новый

Сеул, 9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ны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амолета Air Force Two, используемого для внутренних 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поездок, сообщ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о словам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нынешний Air Force Two используется с 1985 года и нуждается в замене из-за своего возраста.

«Мы тщате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ем новую покупку», — сказал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Yonhap.

По словам другого чиновника, в 2018 году предыду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решила, что возьмет в аренду новый самолет, но покупка нового обойдется дешевле.

«Мы еще даже не разработали подробный бюджетный план», — сказал второй чиновник. — «Даже если мы его купим, на его приобретение уйдет около пяти лет, поэтому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е сможет 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езидент путешествует на Air Force One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их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но иногда использует меньший Air Force Two для поездок в Азию или внутри страны.

KBS World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2»

Обладателями премии, учрежденной губернатором, стали 23 жителя региона, 19 учреждений, предприя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4 ноября в стенах Чехов-центр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лично поздравил победителей.

— Сегодн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мы собрались в этом зале, чтобы подвест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Этот праздник показывает, как важно быть сплоченными. Заботиться о близких. Защищать и уважать исконные традиции и ц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завещали наши предки. Сегодня это актуально как никогда. Чтобы противостоять давлению Запада и победить, мы должны быть едиными. Важно, чтобы общество поддерживало наших бойцов. А они, сражаясь на фронте, были уверены в том, что об их семьях позаботятся. Что дома, на островах, все будет стабильно и спокойно. Этот тыл обеспечиваете вы. Люди мирных профессий. Врачи, учителя, работники сельского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орговл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волонтер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И сегодня мы чествуем вас —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добились наи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професс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заслужили признание и уважение земляков. Ведь именно они отдали за вас свои голоса. Все вместе вы вносите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во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Ваши инициативы и дела помогают сохранять единство и сплоченность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И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труд и высок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Поздравляю с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победо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аяке». Удачи в делах и всего самого доброг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конкурс были поданы сотни заявок. В голосовании на электронных ресурс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сятк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итоге конкурсные комиссии и экспертные жюри отобрали номинантов.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врачи и учителя, спортсмены и тренеры,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волонтеры и молодежные активисты,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и юные таланты. Также за премию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боролись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сферы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убъект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территор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портивные клубы,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движения.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и «Энергия молодых. Команда» — молодежное волонтерское движение «Сила поколения -кто, если не мы?!» из Тымовского.

— Мы к этой победе шли очень долго. На протяжении 9 лет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с волонтерскими движениями — с молодыми ребятами, с «серебряными волонтерами». Мы в Тымовском создали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где сейчас занимаются люди с 7 до 80 лет. Я только что сообщила ребятам, они очень счастливы. Это общая наша побед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выиграли два гр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устроим спортзал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жителей и мастерскую для мальчиков, — поделилась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аботе с молодежью Ольга Капустина.

— Мы недавно вернулись из ДНР. Были с гуманитарной миссией в Мариуполе, Шахтерске и Донецке.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ожидал, что стану одним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в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Этот кубок очень дорог Центру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Корсакова. Все вложили по крупиночке. Особ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кто поддерживал — коллегам, сотрудникам, руководству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Шпачук, признанный лучшим сотрудником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Человеком года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2» стал командующий 68 армейским корпусом Дмитрий Глушенков,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выполняет свой долг в зоне СВО.

Отметим,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из районов будут чествовать во время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губернатора и чле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бизнес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Механизм соглашений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заработал в России в этом году. Информация о нем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сли инвестор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на сумму свыше 750 миллионов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или более 4,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области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ли торговы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он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виде субсидии или налогового вычета по федеральным и региональным налогам, включая НДС,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практику вводится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стабилизационная оговорка. Она гарантирует,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налогов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вестора не будут ухудшаться. Сходные условия действуют теперь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нов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ин-

весторы с проектами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2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фе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начения не имеет.

— Благодаря инвесторам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поступают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мы направляе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орог, школ и больниц.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могая инвесторам, мы создаем новые стимулы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в итоге повышаем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и друг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Например, инвестор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убсидией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по процентам по кредитам, лизингу, приобретению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убсидия на средства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о станки, сло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и прочее. Если речь идет о приоритетных отраслях и участни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а также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7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в прочи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 50 процентов, но не более чем на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ход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было уделено теме подключения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позволила замет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е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процедур,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уменьшить затраты бизнеса. Тепер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упа к электросетям или водоснабжению уходит 26 рабочих дней. К сетям водоотведения — 23 дня. 66 дней потребуются, чтобы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газу. Опрошен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али хорошую оценку достигнутым результатам.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а рассмотрели вопрос о планах построения карьер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и. Этот проект рассчитан на амбициозных людей, нацеленных на успех,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желающих получить эффективных работников.

Чтобы подобрать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дходят конкретному бизнес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МКК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8 800 222 0123.

Почти 37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выплаты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Размер пособия равен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рожиточному минимуму на детей. Сегодня это почти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9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назначаются семьям с доходом менее двух прожиточных минимумов на человека. Для получения эт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МФЦ и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 Выпла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ка ребенку не исполнится три года. Заявление нужно подавать ежегодно, по достижении одного года и двух ле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братиться за выплатой можно в любой момент до трехлетия малыша. Стоит учесть, что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в первые полгода пособи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 с момента обращения за его назначением,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За 10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ыплату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получили почти 37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эт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о свыше 51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 марте у нас родился Федя. Муж недавно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после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этому зарплата у него небольшая. Денег не хватало. Нам подсказали, что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выплату. Начали ее получать, стало заметно легч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Долинска Анна.

— Почти вся выплата уходит на ребенка, естественно. Но и для дома удалось уже приобрести морозилку большую. Купили также телевизор, разного рода утварь, игрушки, одежду. Получаем и другие выплаты, они очень выручают с маленьким ребенком, — рассказала Вероника Семчен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други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Он дополняет выплату, установленную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Размер област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250 тысяч - на второго, третье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и ремонт жилья,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копительной пенсии матери, оплату образования ребенка или социальную адаптацию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яют географию проекта по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К значимой инициативе,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в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сегодня присоединился Смирны-

ховский район. Там установили первые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для сбора вторсырья.

Вывоз собранного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начнется со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Освободятся емкости будут по мере накопления, но не реже раза в неделю.

— Жители, желающие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отходов, постоянно спрашивают: с чего начать? Лучше всего начинать с самого простого — складывать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из-под напитков отдельно. Спустя месяц у вас уже выработается привычка, а далее можно добавлять другие виды вторсырья. Это не так сложно, как кажется.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а,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важности и значимости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в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нужно складывать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из-под напитков,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асла, флаконы из-под бытовой химии, стеклянные и алюминиевые банки и бутылки, а также жестяные банки из-под консервов. Эти отходы подходят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Перед тем, как отправить их в бак, желательно сплюснуть емкости.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для пластика, стекла и металла уже установлены в одиннадца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акие емкости появятся в Томарин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по сортировке отходов охватит весь Сахалин.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везли более 900 тонн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Только в октябре было собрано в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ах 118,7 тонны раздельных отходов, что на 40% больше чем в январе. Специалисты Управления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работают над тем, чтобы вторсырье перерабатывалось и на Сахалине. К примеру, стекло не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а накапливается на полигона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обрали около 30 тонн этого вида материала. После дробления стеклобой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му просвещению жителей. В частности, в школах реализуе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Дели на тр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общественн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одят эко-уроки, вебинары и фестивали.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боле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на итоговом совещании член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координатор центра мониторинг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одератор тематической площадки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На Сахалин она прилетел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а также вице-мэр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занимающиеся вопросам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устроено 125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646 дворов.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ых ремонт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выполняем и текущие.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1000 дворов. Проведена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ейчас важно начать проектировать и создав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 учетом н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Попов.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а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парки, дворы, игр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шко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Невельске, Долинске и Аниве. Она особо отметила чистоту городов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о мнению Светланы Калининой,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преобразились. При этом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есть над чем работать.

— Мы ставим прекрас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площадки, стараемся максимально наполнить их различными игровыми или спортив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Однако многие из них небезопасн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травмируе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Я призываю всех мэров, министров, прокуратуру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их детей, — подчеркнула Светлана Калинина.

С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се элементы на детских площадках должны быть сертифицированы.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комплекс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ранее, будут снесен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ую ревизию: сломанные детали удалить и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восстановить лакокрасочный слой, заменить карабины и некоторые небезопасные механизмы, подсыпать песок, увеличить толщину противоударного покрытия.

По итогам экспертной проверки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направи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ч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улучшения состояния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повыш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글로벌한상드림 정영수 이사장 연임, 3기 이사진 확정

올해부터 추가 기부 결의, 김점배 한상대회장 비롯, 한상단체도 추가 기부 동참

정 이사장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더욱 많은 한상이 장학금 만들어야..."

17년부터 총 3억 8천만원 장학금 지급, 올해 울산 청소년에게 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글로벌 한상드림이 11월 3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정영수 이사장(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 이사장의 연임과 함께 고상구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 김경록 갈텍스인터내셔널 회장, 김점배 알카오스 트레이딩 회장, 박기출 PG홀딩스 그룹 회장,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 하경서 CAISA그룹 회장 등 3기 이사진도 함께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사들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추가 기부를 결의했다. 올해는 한상대회장인 김점배 회장, 김경록 회장, 하경서 회장 등 개인은 물론 미주부티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김금례)와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회장 김채수) 등 한상단체까지 추가 기부에 동참했다.

정영수 이사장은 "한상의 유산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는 기회에서 비롯되고,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기 계신 한상보다 더욱 뛰어난 글로벌 인재가 나와 미래를 위해 더욱 많은 분이 글로벌한상드림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한상드림은 국내외 차세대 한민족 인재 양성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 사업을 목적으로 전 세계 한상들이 지난 2016년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국의 차세대 인재 170여 명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역시 세계한상대회 개최지인 울산 지역 청소년 인재에게 2천만 원의 한상대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삶과 애환 우표에 담았다

충북대 러시아언어문화학과 동아리 우표 발행

영주귀국 전후 모습 담아 '시트형 우표' 만들어

사할린즈 나만의 우표

충북대학교는 러시아언어문화학과 동아리 '사할린즈'가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영주귀국 후의 모습을 담은 '사할린즈 나만의 우표'를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우표 발행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동아리 학생들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20명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과거와 현재 사진 자료들을 모아 10개의 시트형 우표로 만들었다.

우표에는 결혼, 출산 등 귀국 전 사할린에서의 모습과 귀국 후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과의 만남 등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의 기록이 담겼다. 사할린즈는 이 우표를 이달 중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할린 한인사를 알릴 계획이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전달할 하기로 했다.

신민호 사할린즈 회장(러시아언어문화학과 2학년)은 "자료를 수집하고 우표를 만들면서 러시아 사할린 한인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제7회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개최

러시아 21개 한글학교 교사 80여 명 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글학교 교육 방안' 주제로 진행

러시아 한글학교협의회(회장 하종혁)는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 예르소바 호텔에서 '제7회 한글학교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주러시아한국대사관, 종이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연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러시아 21개 한글학교 교사 80여 명이 참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글학교 교육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초청한 강사와 현지 강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재단 파견 강사인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훈민정음 체계 및 제자원리를 활용한 한글교육'과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한국어 발음교육'을, 윤영호 남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가 '플립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방안'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오프라인으로는 장인영 로스토프나도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는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 예르소바 호텔에서 '제7회 한글학교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사진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누 한국교육원 원장이 '한글학교에서 좋은 수업의 조건과 전략', 이세연 로스토프나도 누 한국교육원 부원장이 '한글학교 지원금의 올바른 집행방법', 하종혁 모스크바 한국문화한글학교 교장이 '태권도를 통한 K-컬처', 박동국 오브닌스크 한글학교 교사가 '한글학교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게임'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외에도 K-태권도, K-컬처 붓글씨, K-종이접기 등 시연과 실습을 비롯해 K-팝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됐다.

하종혁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장은 "전

쟁 중인 어려운 시기에 개최된 교사연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 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전쟁으로 러시아에 재외동포들도 징집 대상이 되면서 한글학교 교사와 학생들 또한 전쟁터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한글학교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러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만남과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한글학교협의회는 이번 연수기간에 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유미경 오브닌스크 한글학교 교장을 선출했다. 유미경 신임 회장은 "지난 3년간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한글학교협의회를 잘 이끌어 온 하종혁 회장께 감사하며, 앞으로 임원들과 여러 한글학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러시아 한글학교협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비속어, 옛 먹으라는 말의 오해

옛을 먹어본 경험이 없다는 아이들이 늘어갑니다. 저도 옛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아득하네요. 옛을 먹다가 잘못하면 이빨이 빠질까 봐 이제 무서워서 먹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입시를 앞두고 옛을 선물하기도 했었죠. 옛의 착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생긴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을 먹었다는 말이나 옛을 먹으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입 안 가득 옛을 물고 있으면 침만 질질 흘릴 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를 옛 먹었다는 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옛 먹으란 말이 왜 욕이 되었을지도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이나 먹으라는 말로 상대를 화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옛 먹다는 말에서 우리는 옛이 먹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적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옛을 먹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옛이라는 말이 다른 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옛은 먹는 옛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옛먹다>라는 말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봅니다. 옛이 먹는 옛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본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옛이 아닌 옛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옛보다>와 <옛듣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먹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어휘입니다. 보다, 듣다, 먹다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따라서 옛먹다의 경우는 옛듣다, 옛보다와 마찬가지로 먹는 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옛보다는 말은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거나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살펴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몰래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옛듣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듣다는 사전에 찾아보면 아예 '남의 말을 몰래 가만히 듣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래'라는 말을 설명에 넣은 것입니다. 몰래라는 말의 느낌이 부정적입니다. 불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역시 '옛-'이라는 접두사가 느낌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먹다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옛을 몰래, 숨어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먹으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한쪽 구석에서 몰래 먹는 것만큼 비참하고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옛먹으라는 말은 한쪽 구석에 가서 먹으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나를 옛먹었다는 말도 나에게 한쪽에서 숨어서 먹게 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굴욕적이죠.

그런데 옛먹다, 옛보다, 옛듣다를 한 번에 놓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옛먹다만 따로 놓고 보는 경우는 혼동이 생겼을 겁니다. 옛을 접두사가 아닌 명사로 착각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옛을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욕처럼 사용하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욕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옛을 먹는 모습이나 옛이 이빨에 짙 달라붙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서 욕이라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 먹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이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면서 모욕한다는 느낌이 덜 들어서일 겁니다. 욕도 감정이 실려야 시원합니다. 의미가 안 다가오는 표현은 욕으로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욕은 상대가 기분이 나빠야 욕으로 효용성이 극대화 됩니다. 상대의 부모 욕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옛먹다는 이제 욕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먹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말 속에 수많은 오해가 있었겠다는 생각에 좀 웃깁니다.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고 있으니 몰래 숨어서 먹으라는 말이 욕으로 안 느껴질 듯하네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체스 경기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중함과 침착함을 요구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선수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체스판처럼 검정색과 흰색 줄로 이뤄져 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승리로 이끌 유일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올라 노위코와가 말했다.

행사 귀빈으로 올림픽 체조 종목 챔피언인 예카테리나 포드고르니, 기계 체조 종목 청소년 국가대표 팀 수석 코치이자 러시아 공훈 감독인 예카테리나 시로티나가 참석했다.

이 축하쇼는 높은 수준의 경기력과 화려함, 독창적인 접근으로 유명 선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할린 방문의 일환으로 예브게니 포드고르니 선수는 사할린의 선수들과 코치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예카테리나 시로티나는 11월6일(일) 사할린의 체조 선수들을 위한 활동교실을 열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гимнастик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гимнастики, провели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383 участника создавали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на сцене. Здесь объединились спортсмены, артисты и музыканты.

Свой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ив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 эстетической гимнастики, а также федерация прыжков на батут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Единый ход". Режиссер Ольга Новикова вдохновилась игрой в шахматы. Несмотря на черно-белую тематику, яркие акценты тоже были. Сцену украсили персонажи из различных мультфильмов и сказок.

— Игра в шахматы требует размышлений, размеренности, как и во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видах спорта. Спортсмен не сможет достичь ник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если нет единения тела и разума. Наша жизнь, как и шахматная доска, состоит из черных и белых полос. И когда-то нам

надо сделать тот единственный ход,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ави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к победе, — рассказала Ольга Новикова.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по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Евгений Подгорный и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России,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юниорской сборной страны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Екатерина Сиротина. Праздничное шоу поразило именит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проведения, красочностью и оригинальным подходом.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Евгений Подгорный поделился опытом с мест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и тренерами, а Екатерина Сиротина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гимнасток 6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 Чехов-цент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Золотую маску"

Чехов-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Золотую маску".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выдвинул постановку на соискание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спектакль в драме. Большая форма" и "Лучшая мужская роль" —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Еще один спектакль Чехов-центра "Горка" (режиссер Марфа Горвиц) вошел в лонг-лист фестиваля — список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премьер сезона 2021-2022.

"Мы рады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номинантов и все постановки, отмеченные в лонг-листе! Таким прошедший театральный сезон увидели эксперты "Золотой маск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фестиваль соберет эти спектакли в Москве. Ведь это счастли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зрителей посмотреть лучшее и важ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ля людей театра оказаться в еди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лучить оценку и признание коллег",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фестиваля.

Номинантами премии "Золотая маск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и 50 спектаклей, отобранные двумя экспертными советами по драматическому театру и театру кукол и по музыкальному театру 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180 частных номинаций. В течение года эксперты посмотрели в театрах и на видео более тысячи спектаклей в Москве и еще 132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ах. Спектакли-номинанты премии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Золотая маска" 2023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в Москве и представит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сезона во всех видах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рама, опера, балет, современный танец, оперетта/мюзикл, театр кукол, сообщает Чехов-центр.

(Сахалин-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